

의대 블랙홀, 의대 정원 늘려야



한 용 수 역
돌직구

최근 과학고와 영재학교 입학 후 중도 이탈학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8년간 전국 27개 과학고, 영재학교 전출 및 학업중단 학생은 515명에 달한다. 중도 이탈 학생은 직전 4년(2015~2018년) 대비 최근 4년(2019~2022년) 과학고의 경우 44.5%, 영재학교는 무려 3배 증가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중도이탈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결과다.

교육계는 이런 현상이 의대 진학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2018년 이후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의대 진학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2018년 서울과학고와 경기과학고는 의대 진학시 장학금 회수와 추천서를 금지했고, 광주과학고와 세종과학예술평재학교 등은 추천서를 금지했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의대 제한 조치를 보다 세분화해 촘촘하게 규제했다. 의대 지원시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접수가 가능하게 했고, 상담과 진학지도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고 등으로 전출을 권고했다. 또, 정규 수업 이외 시간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 제한, 추가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조치했다.

이러한 규제를 피해 학생 상당수가 학교를 중도탈락하고 의대 진학에 나섰다. 결국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풀림 현상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올해 2월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율은 9.5%, 과학고는 2.1%로 나타났다.

최근 의대 정시 합격생 10명 중 8명은 재수 이상 N수생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대를 비롯해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고도 반수해 의대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학원가에서는 의대 진학에 패널티를 받는 특목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진학한 뒤 곧바로 의대를 도전하라는 편법을 컨설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중·고 상위권 이과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수험학원은 대부분 수준별로 운영되는 데, 최상위 반은 ‘의·치·한 반’으로 불린다. 의학계열이 이공계 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셈이다.

의대 내에서도 소위 인기 전공으로 풀림이 심각하다. 흉부외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이 갈수록 감소하며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 전공에는 지원자가 몰린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라고 한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지만, 의사가 부족해 응급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앰بول런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해결책은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것이다.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년 가까이 정원이 동결된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의대 정원이 현재대로 유지되면 오는 2035년에는 의사 수가 필요 인력 대비 2만 7232명 부족해진다. 지금도 1분 진료를 위해 한두시간 대기하는 게 기본인데, 앞으론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듯하다.

미래를 이끌 우수 인재들이 특정 분야로 몰려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는 특목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은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힘든 현상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외치기에 앞서, 의대 풀림 현상부터 손봐야 한다.

/세종=hys@metroseoul.co.kr

지금 국회에는 ‘정책대결’이 필요하다



기 지 수 첵
최 영 훈
(정치경제부)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으나 여야는 여전히 서로 혈투기 바쁘다. 정책에 대한 치열한 토론 대신,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는 데 집중하는 게 일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2021년 돈 봉투 전달 대회’를 시작으로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야당도 만만치 않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혹평하고 있다.

외교 현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혈투기 바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여야 간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일 간 우호적 셔틀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며 “이제는 케도에 오른 셔틀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누가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우리의 아픔을 통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나.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나”라며 “이번 한일정상회담, 공허 그 자체”라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물론, 여야가 서로를 혈투는 것과 별개

로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해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9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9일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점이 문제다.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8일 특별법 제정 촉구 차원에서 1만인 서명운동과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역시 ‘파업’이라는 극단적 대결로 커지고 있으나 여야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으나 국회는 ‘상대방 흠집내기’만 하고 있다. 이제는 ‘정책 대결’로 국회가 국민에게 필요한 갈등 해소의 장이 됐으면 한다.

/choiyoungkr@

오늘의 운세 5월 9일 (금 3월 2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힘겨움을 이겨낸 힘으로 더 알찬 열매가 맺어진다. 48년생 소녀시절로 가고 싶다. 60년생 세상 이치를 알고 시장보다는 눈을 길러라. 72년생 이성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접도록. 84년생 직장의 밑으로 일팔성이 있어야.



37년생 인생은 긴 마라톤이니 늦지 않았다. 49년생 투자를 남에게 맡기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 61년생 항상 좋을 수는 없는 일. 73년생 남들도 겪는 직장인의 고민. 85년생 세상을 감탄시키는 글재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8년생 과거에 배운 외국어로 뒤늦게 인정 실력은 인생에서 오래 머무는 보물. 50년생 상처를 입었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다. 62년생 주말농장을 계획. 74년생 시련 없는 인생은 없을 것. 86년생 내 그릇을 알게 되니 행복하다.



39년생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으니 근본을 튼튼히. 51년생 소소한 일에 너무 아파하지 말자. 63년생 어느 시대나 거짓정보가 있다. 75년생 양심과 염치를 알아보자. 87년생 풍수의 관점에서 집안청소를 하루 일과로.



40년생 능력을 내세워 하세 부리지 않도록. 52년생 힘들게 일과놓은 결과가 인정된다. 64년생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상사가 내 옆에. 76년생 실력포함 성실함은 큰 힘이다. 88년생 강남에서만 개천에서만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자.



41년생 내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상관없으니. 53년생 자연인이 되고픈데. 65년생 옹크리고 있는 하루이니 새벽부터 종일 운전주의를. 77년생 편한 것만 찾으려 하지 않도록. 89년생 집안의 안녕을 기원해보는 기도를 시작.



42년생 화무십일홍이니 영원히 가는 재물도 없다. 54년생 비행기를 타는 것도 지긋지긋. 66년생 인간은 상황의 동물이라고 하니 돈을 사랑할 수밖에. 78년생 기다리는 것도 체제의 하나. 90년생 조상님의 가피를 마음에 지녀보자.



43년생 시련이 있으면서 삶은 원숙해진다. 55년생 입바를 말을 한다고 의인은 아닌 것. 67년생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도 다가온다. 79년생 상식선에서 정해진 규칙을 벗어 나지 않도록. 91년생 언젠가 내 지위에서 오르는 날이 있을 것.



44년생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56년생 부동산이나 건축업으로 운이 띄는 길림길에서다. 68년생 보양식을 먹고 행복한 날. 80년생 훗날의 이상에 관심보다는 직장에 충실. 92년생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통찰력은 마음을 닦는 것.



45년생 이동과 변동으로 재산형성. 57년생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주더라도 다 읽지를 못한다. 69년생 가정을 이루고 안정을 원하는데 뜻을 이룸. 81년생 오늘따라 맑은 하늘이 반갑다. 93년생 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동을.



46년생 나이가 들면 일이 더디게 마련이다. 58년생 통찰력이 대단하니 판단도 현명. 70년생 대추 한 알도 익으려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82년생 운을 얻으니 해외파견도 승산 있다. 94년생 늦지 않았으니 뭐든 찾아 기술을 배워보자.



47년생 인생의 틀이 다시 한 번 움직이니 뒤늦은 운이 온다. 59년생 부동산의 귀재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71년생 천둥과 번개가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온다. 83년생 누구를 탓하는 습관을 버려라. 95년생 어느 인생이나 굴곡은 만만다.



김상회의四季 아시아 신흥국 투자

중국의 성장률이 지지부진한 최근에는 새롭게 두 나라가 뜨고 있다. 포스트 차이나로 꼽히는 베트남과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다. 두 나라의 특징은 자본시장이 꾸준히 성장한다는 점이다. 베트남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15년 사이에 14조원에서 270조원으로 급증했다. 인도네시아는 129조원에서 756조원 규모로 커졌다. 여기에 경제성장률은 베트남은 올해 7.5% 성장이 예상되고 인도네시아는 5.4%로 전망한다.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고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단연 눈독을 들일만 한 시장이다. 해외에서 두 나라로 투자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 더해 자국민들도 투자 열풍이 뜨겁다. 한국에서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지 증시 직접 투자가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이 ETF에 큰 돈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대표종목으로 구성된 ETF를 순매수하는 개인투자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선진국보다 새로운 기운으로 융틀임하는 신흥국의 투자 매력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서 성장률이 높고 인구가 늘면서 경제에 활기가 가득하다. 젊은 소비층이 많은데다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소비패턴이 달라지는 것은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고 디지털시장이 커지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려면 지금이 좋은 시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큰 수익률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판단은 다르겠지만 성장성을 본다면 주목해야 할 시장은 틀림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4		7			
		7			9	4
	6		1			8
	7				3	8
2		5				7
	5				8	6
8		3	6		5	
				1		4

6					4	3
3		7		6	1	
	6					2
		3			7	
	9					4
		2		8		7
			7	6		
9	6					4

정답

4	7	8	1	6	9	9	2	6
2	6	9	7	4	9	6	1	8
6	9	1	8	2	6	7	9	4
7	4	6	9	1	8	9	6	2
1	2	9	4	9	6	8	6	7
8	9	6	2	6	7	1	4	9
6	8	4	6	7	1	2	9	9
9	6	7	6	9	2	4	8	1
9	1	2	9	8	4	6	7	6

7	1	8	6	2	9	9	4	6
9	6	2	9	6	4	7	8	1
4	9	6	1	8	7	2	6	9
1	7	6	2	4	9	9	6	8
9	8	4	6	9	1	6	2	7
6	2	9	7	6	8	1	9	4
2	9	1	8	9	6	4	7	6
8	4	9	9	7	6	1	2	9
6	7	4	1	2	8	9	9	

과·이노의 월드파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8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8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